



안산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안산시 시정소식지 | NO. 444

수영장에 모인 시민
삶의 여유를 만끽하다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거리로 나온 예술
삶을 풍요롭게 하다

예술열차안산선 공연 중에서



2017 생태관광국제회의, 오는 9월 안산에서 개최 ‘생태관광 세계적 영향 – 바다, 숲, 인류의 미래’ 주제

안산시가 ‘생태관광의 세계적 영향 – 바다, 숲,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ESTC 2017, 이하 생태관광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생태관광 및 지속 가능한 관광을 둘러싼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및 생태관광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 생태관광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이는 세계적인 행사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안산에서 열린다.

안산시는 민선6기 출범이후 안산시만의 지속 가능발전 도시 모델인 ‘2030 숲의 도시’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1인당 생활권 숲 면적 15㎡ 확보를 목표로 꾸준히 도심 숲 증진, 쌈지공원 조성,

생물종 다양화 사업 등을 펼쳐 왔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생태보전 관련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태관광국제회의는 9월 12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중국 교육부 차관을 역임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장신생(Zhang Xinsheng) 총재, 세계생태관광협회(TIES)의 켈리 브릭커(Kelly Bricker) 회장, 전 국립생태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인 김성일 서울대 교수 등의 기조연설이 준비돼 있다. 이어 일본 환경성 장관을 지낸 일본생태관광협회 카즈오 아이치(Kazuo Aichi), 호주생태관광협회 클레어 엘리스(Claire

Ellis) 부위원장, 대만생태관광협회 빅토르 유(Victor Yu) 회장, 스리랑카 생태관광재단 팔리타 구루싱허(Palitha Gurusinghe) 회장, 중국 국경임업대학교 장유준(Zhang Yujun) 교수 등의 초청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40여 명의 국내외 주요 석학 및 전문가들이 생태관광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역사회 기능 강화, 마케팅 등의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칠 예정이며, 120여 개 체험 및 홍보부스 등 2만 명이 참가하는 생태관광 박람회, 도시농업 한마당, 한국음식

문화 체험행사 등의 이벤트와 대송습지, 대부도, 풍도, 국립생태원, 디엠지(DMZ, 비무장지대) 투어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참여를 원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estc2017.or.kr)나 네이버 검색 ‘생태관광 국제회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세계생태관광협회, 안산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공동 주최하고, 안산시와 한국생태관광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이스(MICE)협회, 안산시관광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 문의 : ESTC 사무국 전화(031-481-3922~5)

안산시, 시화호 수중 탐사 실시

스쿠버다이빙 적합 조사, “조류 영향 없어 큰 장점”



안산시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호수’로 변모한 시화호의 수중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지난 7월 15일 안산시는 스쿠버다이빙 전문가들과 함께 시화호에 직접 다이빙을 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스쿠버다이빙을 통해

시화호가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장소로도 적당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스쿠버다이빙 예비탐사는 안산시와 (사)한국수중과학회(회장 명정구), (사)대한수중협회(회장 이선명), 생명회의(대표 전재경), 안산시수중핀수영협회(회장 문성기)가 함께 참여했다.

(사)한국수중과학회는 수중생물과 자연보호, 해양환경, 잠수기술, 수중영상, 해양 일반행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됐고,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정보와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관련 분야에 공개·보급함으로써 국내 수중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학술단체이다.

이번 탐사는 시화호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안산시가 요청하고, 시화호 수면관리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탐사에 앞서 지난 14일 안산시는 적지조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시화호 스쿠버다이빙장 예비 탐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참가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세부 조사대상을 결정했다.

탐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장마철 많은 양의 토사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 시야 확보와 시화방조제로 둘러싸여 조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점이 시화호 스쿠버다이빙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탐사는 시화호 수질 오염에 대한 편견을 깨고 수질개선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화호가 해양레저 스포츠와 해양레저 활동의 최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탐사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관광도시 안산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3952)



안산 · 화성 · 부천 · 광명 · 시흥 공동 관광코스 개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도시들이 뭉쳤다! 안산시와 시흥 · 광명 · 부천 · 화성 등 경기서남부권의 도시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고 힘찬 도약에 불을 지폈다. ‘경기서남부권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7월 13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만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5개의 도시가 하나로 뭉쳐, 관광자원을 연결하고, 규모 있는 홍보 · 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공동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해 6개월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기서남부권 해외투자 관광홍보관 설치’, ‘2017년 경기서남부권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5개시 관광협의회 상설회의 개최’, ‘5개시 공동 관광코스 개발’, ‘북경 관광홍보관 현장 방문’ 등이다.

특히 ‘5개시 공동 관광코스 개발’은 각 시의 관광자원을 다양한 수요층의 입맛에 맞게 구성해 선보이는 ‘전략적으로 진화된 관광 상품’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안산과 시흥을 연계한 ‘당일코스’는 ‘안산갈대습지공원-오이도-

해양관광단지-시화호조력발전소-유리섬박물관’을 연결하여 지역의 범위를 넓혔다.

1박2일로 진행되는 ‘테마관광코스’는 가족체험, 박물관, 역사인물 전통문화, 걷기, 사진촬영의 5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먼저 가족체험여행은 ‘광명동굴-갯골생태공원-숙박-공룡알 화석지-대부도유리섬-시화호조력발전소’, 박물관여행은 ‘한국만화박물관-충현박물관-숙박-시화호조력발전소-대부도유리섬-공룡알화석지’, 역사인물 전통문화여행은 ‘충현박물관-관곡지/연꽃테마파크-사숙재-강희맹-부천한옥체험마을-숙박-단원미술관-용건릉’으로 구성돼 각기 다른 여행스타일을 반영해 다채롭게 진행된다.

협의회는 ‘공동 관광코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박람회 및 세일즈 콜, 해외 공동마케팅과 공동 홍보물제작 등의 전략을 통해 경기서남부권의 단체 여행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북경의 라이브탱크 박물관에 위치한 ‘경기서남부권 투자관광 홍보관’에서 오는 9월 열리는 개관식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기별 1회 상설회의도 마련했다.

이번 경기서남부권 공동관광코스 개발로 인해 각 지역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가 서로 보완돼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409)

김희경 명예기자_ kepa-korea@hanmail.net

안산시꽃예술연합회, ‘정원 만들기’ 행사

“꽃으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 가꿔요”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단풍이 드는 식물의 모습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여유로운 삶을 산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산시꽃예술연합회(회장 이윤자)는 지난 6월 27일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안산시민 50명과 함께 집안에 들어 놓을 수 있는 작은 정원을 꾸몄다. 잎이 아름답고 꽃과 단풍과 열매까지 일품인 ‘남천’과 고사리의 일종인 ‘후마타’, 강렬한 색과 모양의 ‘크로톤’으로 직경 40cm 남짓한 작은 타원형 토분 안에 관목 숲을 조성했다. 현무암과 편마암 암석은 정원석이 됐다.

우리나라는 주택구조상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실외 정원보다는 실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기능성 식물을 기르는 것이 적합하다. 식물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과 유해균, 냄새를 없애 주고 음이온을 발생해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또한 가족이 함께 식물을 기르면 공동의 관심사가 생겨 가족 간의 결속력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행사 소식을 접하고 참여한 강미희(고잔동 · 44세) 씨는 “식물과 함께 한 이 시간이 참 좋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순해지는 느낌”이라며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돼 더 많은 안산시민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윤자 회장은 “자연을 떠나 인공 구조물 안에 사는 현대인에게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



는 필연적인 게 됐지만 식물을 키우면서 마음의 안정과 창의력, 집중력, 기억력까지 높일 수 있다.”며 “꽃으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가꿔 보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경제적 파급 효과 크다 매년 200억 원 이상 세수 증대… 공사비 30%는 지역 환원



文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안산 사이언스밸리’의 한 축으로 개발

2005년 자동차 경기장으로 추진되다 업체 부도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일명 ‘챔프카 경기장’ 부지에 진행되는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블록 내 건립될 ‘스마트 팩토리 제조혁신센터’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안산 사이언스밸리’의 한 축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사동90블록’은 안산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900여억 원에 매입했던 것을 사업자에게 8천여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9배의 세수 증대를 이뤘으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재정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는 평가다. 더불어 취득세, 재산세 등 매년 2백억 원 이상의 세수가 예상돼 시 재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총 공사비의 30%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지역 상생협약’의 효과가 크다. 공사 현장은 안산 지역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계자들이 먹고 자고 쉬는 데 들어가는 지출도 대부분 안산에서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이 인구 감소 방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산선’이라는 교통 호재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지가 개발됨으로써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안산선’은 당초 4호선 중앙역까지만 계획됐던 것을 ‘사동90블록사업’과 연계해 노선 연장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주변에 들어서는 세계정원경기기(옛 쓰레기매립장)와 맞물려 안산 동남부권의 추가 개발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는 사동90블록 내에 ‘스마트 팩토리 제조혁신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이미 그 주변에는 한양대와 경기테크노파크 등이 모여 있는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약 4천여 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던 골칫거리를 해결한 의미 있는 사업이자 신안산선을 호수동과 사동까지 연장시킨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사동90블록의 일부를 안산 사이언스밸리의 한 축으로 개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융·복합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 마이스 산업과(031-481-3051)

안산시, 2017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우수상’ 청년예술창작소 ‘아트 빌리지’, 40억 지원받는다



시 “청년에겐 일자리를, 시민에겐 문화적 여유를 제공”

지난 6월 29일, 킨텍스 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된 ‘2017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안산시가 ‘청년예술창작소 아트 빌리지(A-VILLAGE)’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집행 방식의 혁신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오디션이라는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공모사업으로 이번 오디션은 올해 2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30개 시·군에서 신청한 49개 사업 중 현장심사·예비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는 10개 팀이 진출했다.

이날 창조오디션 본선은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 본선 진출 10개 시·군 관계자, 도민 평가단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

로 진행됐다. 각 분야 민간전문가 20명과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1천 명의 도민평가단이 심사를 맡았다. 안산시가 제안한 ‘청년예술창작소 아트 빌리지’는 안산의 풍부한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해 젊은이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간 일부를 기반 시설로 활용, 컨테이너의 예술적 설치를 통해 청년 예술인 창업공간과 커뮤니티 및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운영센터, 창작 스튜디오 등 입주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이루어지는 창조빌리지 ▲공방·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예술 창작과 소비를 위한 아트빌리지 ▲세미나·야외 파티룸 등 누구나 즐기는 공유 공간인 힐링빌리지를 조성해 773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간 방문객을 늘려 약 2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와 함께 사업을 계획한 김태현 민예총 안산지부장은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도록 해오던 차에 시에서 오디션을 함께 준비해보자고 연락이 왔다. 본선 진출만 해도 좋겠다 싶었는데 본선에 진출하고 우수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 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유경제 창출의 공간으로 실험된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시민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문화유원지’에 대해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젊은이들에게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 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에 목말랐던 시민에게는 꿈과 상상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년 예술창작소 아트 빌리지’로 행정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내에 컨테이너 108 개동을 설치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만듭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이 포함되고, 중소기업청 내 사회적경제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브라보안산은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안산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을 소개한다. 이에 앞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현수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Q.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국가정책의 실패에 대응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를 뜻한다. 특히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지나친 자본 논리에서 파생한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이들을 다양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Q. 사회적기업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나?

안산 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17곳과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9곳이 운영되고 있다.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단법인,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이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혼합형(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운영 중이다. 안산에는 아이쿱, 두레생협, 의료생협 등 130곳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만이 공공구매나 판로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문화세상고리, 은빛동지, (주)친환경상품지원센터, (주)명화극장, 사회적협동조합양지돌봄을 비롯한 26곳의 안산시 소재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 교육, 의료, 다문화, 돌봄 등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야의 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 다음호에 계속

◇ 문의 : 안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031-481-894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나눔과 상생의 제품 · 서비스 만나보세요”

이윤 창출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공동체와 환경을 가꾸는 사회적경제 ‘스토어36.5’가 지난 6월 26일 상록구 성포로 30, 108-3호에 문을 열었다.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이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스토어36.5는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매장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원하고 두레생협에서 운영을 맡았다.

안심 먹거리와 친환경세정제, 공정무역·핸드메이드·업 사이클 제품 등 전국 사회적기업의 상품 100여 가지와 서비스를 판매한다. 진흥원과 지자체가 협업해 상품 품평회 등을 거친 인증된 제품들이다.

두레생협 이용진 상무이사는 “일반 제품에 비해 일부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이곳을 통한 소비가 결과적으로 생산자를 살리고 지구를 살린다.”며 “매장이 많아지고 안산시민이 자주 찾아주셔서 사회적기업과 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했다.

매장을 찾은 김길순(53·성포동) 씨는 “집 근처에 매장이 생겨서 반갑고, 설거지 할 때마다 사용하는 주방세제를 사회적기업의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서 수질오염을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친환경주방세제와 개점 기념으로 50% 할인된 커다란 수박 1통, 각종 채소, 건어물 등을 바구니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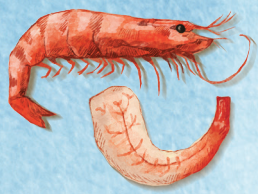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 통합 등 사회적 목적 달성에 영업활동의 의의를 둔다. 그

래서 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고 이야기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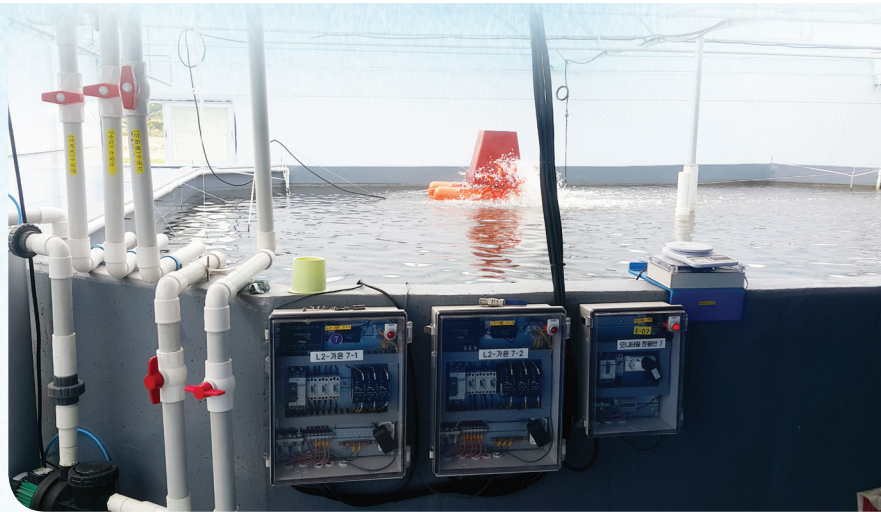
오광성 진흥원장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커지는 지금 안산지역에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매장이 문을 열게 돼 의미가 크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으로 제품 판로가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스토어36.5(031-413-003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대부도에 친환경 첨단 양식단지 들어선다



전통 수산업에 첨단기술 접목... '건강한 새우' 양식

어민 소득 높이고
소비자 만족
향상될 것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수온이 오른다.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한다. 또 매년 찾아오는 적조도 양식장을 힘들게 한다.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양식기술이 있다. 바로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기법인 '①바이오플락(Bio-Floc)'이 그것.

'안산의 보물섬' 대부도에 바이오플락 선도기업이 주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첨단 양식단지가 들어선다.

서울대학교에서 해양생물·환경을 전공한 박사 5명이 지난 2002년 설립한 ②(주)네오엔비즈(대표 이규태)가 주인공으로, 지난 2014년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됐다.

네오엔비즈가 단원구 대부남동 139, 140번지 약 1만평(총 면적 33,058㎡) 부지에 설립하고 있는 첨단양식단지에는 양식동 4동(수조 100조), 무병종묘생산동 1동, 창고시설 1동, 위생포장시설 1동을 비롯해 수산물 홍보체험판매장 1동도 포함돼 있다. 연구동과 생산동을 모두 운영하며 흰다리새우 뿐만 아니라 장어, 해삼, 전복, 광어, 복어 등 다양한 어종에 대해 친환경 양식을 연구하여 상용화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안산시와 네오엔비즈는 첨단 시설과 우수 인력을 토대로 개발되는 친환경 양식업의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해 어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인다는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지역 주민 30여명 고용... 생산성 높은 기술 어민들에게 전수

대부도는 과거 많은 새우 양식장이 운영되던 곳이나 흰반점 바이러스 등 대규모 폐사를 야기한 질병으로 인해 대부분이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며, 방사능이나 항생제 등에 대한 우려로 지역 소비자들의 수산물 기피현상이 심화돼 있는 지역이다.

이에 안산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및 '2020 해양수산 중장기 계획'에 의거, '대규모 첨단 양식단지를 구축하고 해양생태관광 체험과 시식이 가능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내외 양식산업 선두 기지이자 수출 거점도시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바이오플락'의 네오엔비즈를 선택, 수질악화와 질병 폐사 등 치

명적 약점을 안고 있는 전통 양식법의 극복을 위해 무환수, 무배출, 무병양식, 무항생제의 첨단 양식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플락은 전통 새우 양식에 비해 약 54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새우가 가지고 있는 비린내와 흠내, 잡내 등을 없애 감칠맛이 풍부하고 식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오엔비즈 이규태 대표는 "이제 물고기도 첨단과학인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환경·에너지기술(ET) 등이 총동원돼 키워야 하는 시대다. 바이오플락이 그 대표적인 양식기술로 똑똑해진 양식업은 미래수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반적인 양식보다 사료량이 30% 줄고 배설물이 쌓이지 않아 수질오염도 적다. 또한 항생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성장이 빠른 것도 장점"이라며 "환경과 인간을 보호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친환경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 수산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친환경 첨단 양식기술인 바이오플락은 수산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자, 안산시가 에너지 자립도시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양생태관광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①바이오플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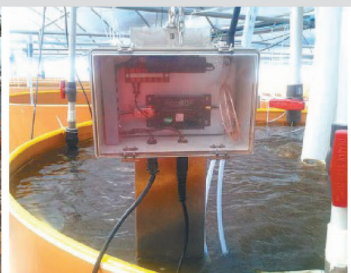
양식 어류의 배설물을 유익한 미생물로 분해시켜 폐수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친환경 최첨단 양식기술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차단하고 사육밀도를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며 항생제 및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쓰지 않아 건강한 어류를 양식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양식장과 달리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돼 강이나 해안이 아닌 도시의 건물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양식할 수 있다. 최근 수산과학원은 이 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를 대량 양식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②네오엔비즈

박사 6명, 석사 12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270건에 달하는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바이오플락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관련 기술로 해양수산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업체이다. 지난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포장을 수여했으며 지금까지 총 6번의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바이오플락 양식장 내부 모습



실시간 수질센서



스마트 산소조절



수질 분석용 컴퓨터 설비



스마트폰으로 수질관리



故안주현 군 어머니 김정해 씨

“여전히 진흙에 묻혀있을 흔적들... 그건 또 다른 주현이거든”



“3년이나 지났지만 사실 지금 더 아파. 어쩔 땐 주현이 영정사진 보면 내 옆에 앉아있는 것만 같고, 요즘 그런 걸 더 느끼게 돼. 지금 주현이가 옆에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맛벌이 하라 아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던 주현 엄마 김정해(이하 주현엄마) 씨는 사소한 모든 순간들이 그저 안타깝다. 늦게 퇴근해 간식 한번 못 챙겨준 것이, 부모 욕심에 공부를 더 잘하길 기대했던 것조차 돌아보면 못내 미안하다. 그런 아들을 잃은 엄마는 차가운 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전국 거리를 돌며 진상규명을 위해 서명 받으러 다니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았다. 때문 ‘될 더 받으려고 하나?’며 비수처럼 꽃히는 말들도 묵묵히 받아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잃었기 때문에.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수 없이 자책했다. “집에 있으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해. 무조건 밖으로 나와.” 그래서일까. 4.16합창단, 노란리본 연극단, 간담회 등 세월호 유가족들의 행사마다 주현엄마의 얼굴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탄핵 순간이지. 그때는 뭘 듯이 기뻐 였니까. 내 자식한테 뭐라도 조금 해 줄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어. 스물네 번 촛불집회도 다 참석했거든.”

평일 저녁 온마을센터에서 만난 주현엄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돌아올 수 없다.

세월호 선체를 보던 날의 처참함, 주현이 없는 가족들의 삶, 그리고...

물로 들어오는 세월호를 처음 본 순간 주현엄마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다. 3년 동안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올라온 배의 형상은 ‘사람이 타던 배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했다. 여기저기 뚫려있는 수많은 구멍과 부식돼 새까맣게 녹슨 세월호. 마치 우리 아이들이 온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통곡밖에 나오지 않더라고. 누군가 마시라고 물병을 쥐어줬는데, 그걸 배를 향해 던질 정도였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주현엄마는 분노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그날의 광경을 똑똑히 기억한다. 세월호 4층 선수(船首, 배의 앞부분). 누구라도 창문만 깨졌으면 아들과 친구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곳. 여전히 진흙에 묻혀있을지 모를 주현이의 흔적들. 엄마는 평소 주현이가 아끼던 기타와 가방, 옷, 운동화를 다시 찾을 수 있길 기다린다. “주현이가 올라올 때 썰렁하게 맨발로 올라온 게 너무 마음에 걸려. 주현이거니까 꼭 찾고 싶어. 다른 게 아니라 그건 또 다른 주현이거든.”

주현이는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고 꿈도 많은 아이였다. 기타를 좋아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혼자 연습하고, 한양대 자동차공학과를 가겠다는 꿈도 있었다. 워낙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 옷 하나도 깨끗하게 가져 입고, 방 정리정도도 잘했다. 말대꾸 한 마디 안 하던 착한 아이였고, 4살 터울 동생에겐 율타리처럼 든든한 형이었다. 원래 미술을 좋아해 상도 많이 받아왔던 둘째는 사고 후 형이 좋아하던 음악으로 진로를 바꿀 정도로 큰 내적 변화를 겪었다.

주현엄마는 참사이후 고기를 잘 못 먹는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나가도 숟가락을 뚝 수 없다. 평소 고기를 좋아했던 주현이. 엄마의 울음이 터지자 아빠도, 막내도 울고, 밥상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 아무도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었다. “한 가정을 파괴시킨 거나 마찬가지야.”

세월호 희생자 가족 중 100여 가족은 보상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더해 생계까지 어려워졌다. 무너졌던 삶을 다시 새롭게 직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재난 이후의 삶을 다시 짤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공동체가 함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엄마의 울음이 터지자 아빠도... 막내도...”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사진 : 안산문화재단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전통가옥 청문당(부곡동)의 여름 ‘현정승집도’... 선조들의 복날 풍경을 재연하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마땅한 냉방시설도 없던 선조들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냈을까? 폭폭 찌는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던 7월 8일(토),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 청문당(부곡동)에서는 선조들의 복날 풍경을 그대로 재연하는 재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청문당은 단원 김홍도의 스승 표암 강세황의 처가로 당시 청문당에는 만권서적이 보관된 서고가 있어 ‘만권루’라 불리며 조선4대 서고 중 하나였다. 조선후기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남인 문사들의 교류장소로 실학자들의 구심점이 되던 곳이기도 하다. 표암 강세황이 35세에 그린 그림,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는 당시 청문당에서 있었던 초복날 모임의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그림에는 강세황의 처가 인척과 어린 두 아들, 며느리 귀남이까지 모두 11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청문당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바둑을 두거나 부채질을 하고 책을 보는 모습, 거문고를 켜고 시를 지으며 고기를 삶아먹던 초복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돼 있다.

안산학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거문고 연주와 현정승집도 해설, 극단 ‘이유’ 연기자들의 현정승집도 재연이 마련됐다. 강세황의 아들 강흔을 연기한 최시온(석호초1) 어린이는 아직 한글을 다 떼지 못해 엄마가 불러주는 대사를 하나하나 외워가며 연기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불안한 하늘은 고택의 운치를 더했고, 더위에 지친 이들을 위해 안산시행복예절관에서 준비한 시원한 과일화채와 떡도 즐거움을 더했다.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은 “안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각 고을마다 현정승집도와 같은 잊혀져가는 자그마한 역사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재미있는 역사들을 찾아내 시민과 함께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 문의 : 안산학연구원(031-475-470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안산시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마을의 터줏대감, 힘을 합친 ‘동네 마트’



옛 동네 풍경에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던 ‘동네 마트’가 있었다. 소소한 일들을 살피고, 도우며, 마을 사람들을 가족 공동체로 묶어내는 골목골목의 터줏대감들. 경쟁시대, ‘정다운 동네 마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는 것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방’으로 우뚝 서고자, 안산시와 ‘동네가게 사장님’들이 힘을 모았다. 안산시 나들가게는 7월 19일부터 25일 까지 7일 동안 ‘공동세일’을 펼쳤다. ‘공동세일’은

소규모 점주들이 모여 공동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대량 구매하고, 소비자와 그 이윤을 함께 나누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구조적으로 경쟁에서 소외됐던 ‘동네 가게’들이 힘을 합쳐 ‘대형 마트’와 같은 구매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번 공동세일전에는 약 40개 점포가 참여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60개 품목을 선정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공공구매 및 판매역량 배양을 통해 골목 슈퍼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점주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자체적 업무 시스템 조직화를 유도, 나들가게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안산나들가게협동조합 서현옥 총무이사(부곡하나로마트 점주)는 “싸게 팔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도 잃었지만, 공동세일전을 준비하면서 대형마트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마련됐다. 모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껴보니 전율이 흐르고 자신감이 생겼다.”며 “한국형 동네마트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구심점으로 아이들 보호나 어르신들의 쉼터이기도 했다. ‘중요한 것들은 남기고, 필요한 것들만 변화하는’ 나들가게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29)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⑧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창작극단 '에픽컨템포러리'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카르페 디엠(Carpe diem)',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인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가 화두인 시대. 이와 궤를 같이하는 창작극단의 김승운(31) 대표를 만났다.

'극단의 운명은 극단 이름과 함께 한다'는 말이 있다. 컨템포러리(contemporary)는 '동시대의'라는 의미로 현재 가장 새로운 패션 콘셉트를 표현하는 용어다.

"관객을 만나는 다양한 채널 중에 우리는 우리 나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현상 등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이 시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겠다"는 극단 '에픽 컨템포러리'의 팀원은 싱어송라이터 손범, 희곡작가이자 공동대표 김익현과 연출을 맡은 김승운 대표 셋이다. 이들은 지난 4월 <남산타워 벚꽃은 4월에 진다>를 대학로 무대에 올렸다.

2014년 서울예대 오디션 '젊은 프로덕션'에 당선작으로 선정된 연극을 본 입시생이 음악을 기억하고 다시 공연을 보러 온 적도 있을 만큼 단단한 실력을 갖췄다. 업라이트 피아노, 기타, 첼로가 복잡 미묘한 주인공들의 감정을 대변하며 분위기를 살려주는 이 연극은 청춘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입소문을 탔고 극단의 대표 레퍼토리가 되었다.

가슴 뛰는 나만의 일은 운명처럼 다가온다



원주가 고향인 김승운 대표는 고1때 팝핀 댄스에 빠졌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길 원하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에 집중했고, 주말에는 팝핀을 계속했다. 고2때 '스탑 마인드'라는 팀을 결성했고, 단국대 화학과 입학 후 자연스럽게 팀은 해체됐다. 그러나 청년 김승운은 4학년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학교를 떠나 다시 서울예대에 입학했다. 스물일곱, 그는 운명처럼 7년 전 헤어졌던 팝핀 팀 '스탑 마인드'와 재회하고, 둘은 함께 작품을 만들기 약속했다.

10페이지 분량의 <남산타워 벚꽃은 4월에 진다> 대본을 받던 날, 청년 김승운은 또 다른 청년 손범을 가수로 영입했다.

외도, 다양한 경험은 삶의 영양제다

대학시절 단과대 학생회장

경험이나 밴드 결성, 힙합동아리

등의 활동이 연극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 휴학 후 열 달 동안 가구회사에 다니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유망한 VR회사에서 조감독으로도 근무했다. 연극에서의 이미지 연출이 VR회사에서는 공간 연출로 이어졌다. 안정적인 수입이 주어졌지만 결국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연극을 제작, 대학로에 공연을 올렸다.

"재능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지만 재능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연출이나 배우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동료들과의 협업. 서로의 이해와 존중, 배려 없이 작품은 완성되지 않아요."

관객과 만나는 순간 완성되는 연극. 연극인 김승운 대표는 비슷한 나이의 출발선에 서 있는 젊은 창업자들끼리 뿜어내는 에너지로 오늘 또 오뎅이가 된다.

◇ 문의 : 에픽 컨템포러리(anthonybk@icloud.com)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안산시 정책 검색 서비스 '좋은정책 1번가'

시민 맞춤형, "생활과 밀접한 정책 찾아보세요"

'사람중심 안산특별시'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혹시, 필요한 정보를 놓쳐 아쉬웠던 적이 있다면 여기, 여러 분야의 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를 활용해 보자.

'안산시 좋은정책 1번가'는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생활, 문화, 교육, 경제, 행정 등 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정책 검색 서비스'로, 시민의 복지와 삶의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 정책이지만 다소 접하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한, 문턱이 낮은 열린 정보 서비스다. 안산시청 홈페이지(www.iansan.net)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배너를 통하거

나,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http://good.bravoansan.net>을 직접 입력해 입장할 수 있다.

검색 서비스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들을 추려주기도 하고, 취약계층, 다문화, 장애인, 여성 등 관련 범주별 정책을 찾아주기도 한다. 또한 문화, 축제, 책, 나눔, 돌봄, 공동체 등 관심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도 있으며 금연, 비만, 쓰레기, 환경오염 등의 주제로 살펴볼 수도 있다.

7월 10일, 인기 순으로 검색한 이날의 정책에는 '안산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공휴일을 제외한 1인 1일 200ml 흰우유 제공' 등의 영유아 관련 정책과 '청소년정책 자문을 위한 차세대위원회 활동' 등의 청소년 관련 정책이 있었다. 야간과 주말에도 시간 제약 없이 민원을 처리하는 365만원실 운영에 관한 정보도 눈에 띄었다. 이밖에도 이

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성장 지원 서비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한 목욕지원, 장학사업, 임대 주택 입주 지원, 일자리센터의 취업 알선 등의 정보들이 줄을 이었다.

시민들의 생애주기와 생활환경에 맞춰 다양하게 펼쳐지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이제 '좋은정책 1번가'에서 손쉽게 살펴 볼 수 있다.

정상래 안산시 공보관은 "우리시에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별도의 공간에 모아 단 한 번의 클릭(click)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자나 이용방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원 스톱(one-stop) 서비스로 준비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민원콜센터(1666-1234)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com



안산의 도시농부를 만나다 ①



최형용 씨(초지동)

최형용 씨는 현재 단원농장에서 진행되는 농사교육을 받고 있다. 안산도시농업연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농사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은 최형용 씨는 전문가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밭에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 그래서 관리자라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밭에 자주 나온다. 실제 본인이 농사짓는 땅은 10평 남짓이지만 동기들과 지인들의 밭까지 꼼꼼히 관리해주고 있다.

몇 년째 똑같은 작물 위주로 농사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작물들을 시도해보고 있다. 올해는 도라지, 하수

오, 당귀, 더덕 등을 심었다. 작은 하우스를 만들어 모종을 키우거나 하우스 밖으로 호박넝쿨을 늘어트리기도 하며, 가족들과 먹을 찬거리도 틈틈이 기르고 있다. 밭 한쪽 귀퉁이에는 막걸리 안주인 방울토마토가 쑥쑥 자라고 있다.

Q. 언제부터 도시농부가 됐나?

전에는 어르신들 하는 것 좀 도와주고... 아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텃밭 가꾸는 정도만 했다. 교육받고 제대로 시작한 건 5년.

Q. 왜 농사를 짓나?

바른 먹거리 때문이다. 약을 치지 않고 내가 직접 키워서 지인들에게 나눠 주는 게 보람이다. 농약 없이, 비닐 멀칭(mulching, 땅을 덮어주는 것)도 안하고, 내가 직접 액비나 퇴비를 만들어 농사지어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좋다.

여기서 나오는 건 못생기고, 작고, 불품없다. 벌레가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야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인들도 마트에서 파는 것들과는 맛이 다르다며 좋아한다. 유기농 농사를 지으니 채소들이 각자 가진 맛을 내준다고 나 할까?

Q. 자연과 함께 할 때 무엇을 느끼나?

밭에 오면 음악을 듣는다. 흥겹게, 재밌게 농사를 짓는다. 가끔은 독백도 한다. 작물과 대화를 한다면 좀 그럴

"앞으로도 휴과 함께 하고 싶어요."

겠지만, 이런 저런 말을 잘 거는 편이다. 작물들도 다 느끼는 것 같고, 밭은 휴식 같은 곳이다. 쉼표, 집이 바로 앞인데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늘 들른다. 휴식을 하러 온다. 밭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자주 온다. 물론 집에 가도 편안하지만(웃음).

Q.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을 잡고 온다. 밭에서 열매를 따와 옷에 대충 닦은 후 먹여주는 모습을 보면 참 좋다. 그런 풍경을 많이 보고 싶다. 함께 교육받는 동기들이 있다. 바빠서 못 오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대신 풀을 매주기도 한다. 네 밭 내 밭 나누고 선을 딱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인식을 가지려 한다.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농장명	위 치	구좌수	분양조건
단원농장	초지동 747 (의료시설부지)	5평 / 1,841	16.5㎡ (약5평)
초지농장	초지동 666-2 (체육시설부지)	5평 / 315	
제2초지농장	초지동 667 (화랑유원지내)	5평 / 212	
신길농장	신길동 1380외 (신길동 63블럭)	20평 / 512	66㎡ (약20평)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유가희 명예기자 _ 425170@naver.com

62세 늦깎이 중학생, 이창옥 씨

겨레일 살리기 전국 중 · 고등학생 백일장 '동상' 수상



"화가가 되고 싶고 붓글씨 쓰는 사람도 되고 싶었지만, 이제 다시 새로운 꿈을 꾸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늦깎이 중학생 이창옥 씨(안산용신학교 중학1, 62세)가 겨레일 살리기 전국 중 · 고등학생 백일장에서 중학부 동상을 수상했다.

Q: 수상을 축하한다. 소감은 어떤지? • 상을 받을 거라 생각 못해 식구들도 놀랐다. 백일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쓰면서 속이 후련했다. 어렸을 때 글짓기로 많은 상을 받았는데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이 생겼다.

Q: 학교생활은 어떤지? • 지금 내 삶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은 학교 오는 것이다. 친구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설레고 기쁘다. 모든 과목이 좋지만 특히 영어와 한문 시간을 좋아한다. 지난 봄에 다녀온 소풍, 단원미술관 체험 등 모두 즐겁다. 8월에 떠날 수학여행도 기대된다.

Q: 꿈은 무엇인가? • 옛날 초등학교 때 각종 글짓기, 그리기, 붓글씨 대회 등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 그 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고 붓글씨도 쓰고 싶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꿈이 생겼다.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가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Q: 식구들 반응은? • 두 아들이 열렬히 응원해주고 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꼭 참가하고 무엇이든지 다하라고 지지해준다. 올해 사회복지학 공부를 마친 남편의 응원도 힘이 많이 된다.

Q: 올해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 용신학교를 찾아온 것이다. 2월 마지막 날 학교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해 배움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 행복하다.

감이 생겼다.

Q: 시제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었나? • 제시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고, 그 중 핵심 단어나 사상을 경험에 비춰 시나 수필로 쓰는 것이다. 책을 읽던 중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뉴스 속 정치이야기 중 부정부패를 다뤘다.

Q: 중학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 공부에 대한 생각을 늘 품고 살았다. 20대 후반에는 영어 학원도 다녀보고 했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다보니 공부할 기회가 생기지

이선희 명예기자 _ iamyou70@hanmail.net



슬기초 정종훈 교장

전교생과 나눈 소통의 흔적을 전시하는 '퇴임식'



교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놀이터로 만든 슬기초등학교 정종훈 교장이 화제다. 40년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정 교장은 '가장 행복한 학생이 가장 행복한 학교에서 가장 행복한 선생님에게 가장 행복한 교육을 받는 학교'를 바랐다.

교장실 앞 복도에는 '바보문제 맞추면 비타500' '무지개 분수 고맙습니다' '창문 환풍구에 참새가 집을 지었어요' '따뜻한 교장선생님! 건강하세요~' 등 아이들이 남긴 메모와 캐리커처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교장실에는 정 교장이 직접 그린 민화와 문자도(文字圖), 아이들의 그림과 삼행시 등 작품이 전시 중이었다. 오는 8월 31일 정년퇴임을 맞는 정 교장은 지난 3년 동안 전교생과 나눈 소통의 흔적을 전시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갈음한다. "한 시간씩 걸리는 퇴임식은 아이들에게는 지루하기만 한 행사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쉬는 시간이 되자 먹거리와 오목, 체스, 장기, 젠가가 갖춰 있는 교장실은 참새방앗간이 되었다. 우르르 몰려든 아이들은 "선생님, 오목이랑 알까기하러 왔어요." "저는 어제 아파서 못 왔어요."라며 앞 다퓰 교장선생님의 손을 잡는다.

인문학 문제풀기, 전교생 생일 챙겨주기, 교장선생님께 메모 남기기 등 교장실을 '찾을 구실을 만드는' 열정에 교사들을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손기화 교무부장은 "늘 아이들 위주로 생각하면서 학습의 장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교장선생님을 보면서 진정한 교육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은 온화한 할아버지를 찾듯 교장실을 들락날락한다. 권위를 탈피한 '열려있는 교장실'은 최고다."라며 다양한 일화를 소개한다.

지난 3년 동안은 '효도하겠습니다, 효자 되겠습니다. 저는 효자입니다'라는 효 인사 말 문구를 들고 매일 아침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았다. 또, 누구라도 상을 받게 해야겠다는 취지로 '슬기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씨름, 오목, 줄넘기, 투호 등 아이들 다수가 뽑은 순위의 10개 분야를 선정, 참여 학생 모두에게 우수상을 수여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다.

정 교장은 "나와 찍은 사진이 추억 속의 한 장면으로 남아 후일 이들의 결혼영상에 등장해도 좋겠다."며 웃었다.

정 교장은 또 안산청소년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임다현 학생의 동시 '사랑하는 그대를'에 멜로디를 넣고 2,3절을 작사하기도 했으며, "세월호 유가족에게 기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3년 동안 만난 아이들과 주고받은 쪽지, 손편지 그리고 현재부터 과거를 되짚는 글들이 퇴임 기념 문집으로 남았다. 아이들에게 선물한 '무지개 분수'처럼 이들의 인생에 일곱 빛깔 무지개로 남겨질 선생님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강순근 엄지장학회 회장

2017 안산시 여성상 수상... '최용신 선생'을 닮다



안산시 여성상을 수상한 강순근 엄지장학회 회장(85세, 대부북동)을 만났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단원구지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광덕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강순근 회장은 15년 전에 결성한 엄지장학회에 대해 "사회활동 하는 여성 20여 명이 좋은 일을 해보자고 시작한 일이 15년이 됐어요. 50대였던 회원들이 이제 60~70대가 되었죠."라고 했다.

엄지장학회는 한 달에 3만 원씩 1년간 모은 회비를 안산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매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중학생 10명에게 30만원씩, 고등학생 10명에게 4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8월에 전달할 예정이다.

"커가는 꿈나무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회원들의 마음이 화창하고, 마음이 곧 회의인 사심 없는 모임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밥값을 내면서 각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가장 큰 보람이자 최고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15년 동안 큰언니처럼 엄마처럼 믿고 따르는 회원들은 이제 제 가족입니다."라며 활짝 웃는다.

강 회장은 대부도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며 2000년부터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 10대·12

대 회장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한노인회단원구 지회장을 역임했다. 서울에서 거주할 당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니던 스포츠센터에 노래교실을 요청했던 경험도 2000년 경 안산으로 이사 온 후 그 맥을 이어갔다. 결혼식이 없는 평일에 비어 있는 웨딩홀을 이용한 여성문화교실은 280회 이상 열렸고, 주부가요제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작은 모임을 사단법인으로 이끌고, 흩어진 단체를 모아주는 일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다.

대한노인회 단원구지회장 시절,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 등 개개인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환시켰다. 백합합창단을 창단해 이론과 실기를 겸한 어르신 합창단을 만들었으며, 일어에 능통한 어르신들을 모집해 안산챔프카대회 통역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1주일에 하루씩 일어교실을 추진했다. 2010년 12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로부터 우수지회 트로피를 받기도 했다.

강순근 회장의 삶은 소설 '상록수'의 여성운동가 최용신 선생을 닮았다. "지금은 여성이 활동할 여건이 더 좋아졌다.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강순근 회장은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열여덟에 평양에서 서울로 피난해 온 실향민으로, 이후 안산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활동에 힘쓴 21세기형 여성운동가다. 매일 10리 길을 걸어 다니며 어린이를 가르쳤던 최용신 선생과 대부도에서 매일 30여km를 오가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강순근 회장의 삶이 평행이론처럼 오늘날 안산 여성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청소년 공정여행 '길 위의 희망 찾기'

일본 오사카, 중국 백두산... 우리 스스로 준비했어요



‘길 위의 희망 찾기’는 아름다운재단과 트래블러스맵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공정 여행 지원사업이다. 심사에서부터 여행 후 결과보고서까지 총 8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 사업에 안산지역에서 2곳의 청소년 팀이 합격했다. 저마다 ‘희망 찾기’에 나서는 것.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여행 기획부터 일정 짜기, 여행 후 발표까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구인의 정류장’… 오사카 집중 탐구

“지구인의 정류장”은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청소년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단체다. 이번 여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만나 강연과 공부, 토론을 진행했다.

최소년 8명과 멘토 4명이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동안 진행한 이번 여행은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다문화적인 특성들을 찾아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전개하는지를 경험했다. 또, 오사카와 안산 이주민들의 삶 속 권리와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여행에 참가한 노 모균(고3)은 “캐리어에 짐 싸는 게 제일

즐거웠고 유카타를 입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고 말했으며 박 모 군(고3)은 “모든 일정을 우리가 전부 알아서 짤 수 있어서 즐거웠고, 일본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좋다.”고 했다.

‘기부이펙트’의 백두대간 종주여행

‘기부이펙트’는 ‘관계-발견-가치-공동체-소통’을 배우는 방과 후 대안교육 프로그램 ‘아 지트 스콜레’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이번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여행을 준비하며 한반도의 역사와 중국에 대해 공부하고 백두대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들은 이번 여행 후 ‘백두산 로드맵’을 완성해 많은 사람들에게 백두산으로 가는 길을 알려 줄 예정이다.

청소년 6명과 멘토 2명으로 구성된 백두산 팀은 오는 8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6일 동안 백두대간을 도보로 행진한다. 이는 ‘단순히 몸을 써서 산을 오르는 것’ 이상의 의미로, 최소 20km 이상의 거리를 걷게 된다. 식량을 비롯해 필요 물품은 자기 배낭에 짊어지고 가야 하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총체적으로 ‘책임’에 대한 교육적 의미가 담겨있다. 광영광 군(성포고3)은 “백두산에 대해 공부했고 로드맵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라며 “한라산 완주했을 때 굉장히 뿌듯했다. 이번엔 백두산이다. 그리고 북한 사람도 만나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김용규 군(송호중3)은 “중국어는 못하지만 보디랭귀지로 일단 친해진 후 친구를 만들고 싶다. 돌아와서는 중국어를 공부해서 SNS로 대화도 나누고 싶다.”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공정여행 : 공정무역의 개념에서 차용해온 것으로 지속가능한 여행, 책임여행 등의 한국적 표현으로 여행 산업 내부의 각종 관계에서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조한다.

◇ 문의 : (주)트래블러스맵(02-2068-2788)
유가희 명예기자 _ 425170@naver.com



먼저 7월 26일 17시, 어린이 및 안산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목수장이 엘리' 토이 뮤지컬을 선보인다.

이미 50만 관객을 유치한 이 뮤지컬은 아름다운 인형나라에 살고 있는 ‘포포’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이야기하며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선사한다.

인산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직접 탐방해보는 인문학 프로그램 ‘엄마도 누리보자! 미술인문학’도 마련됐다. ‘단원 김홍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 신윤복과 김득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술세계, 역사, 문화 등을 살펴본다.

오는 8월 22일에는 ‘경제 김득신’을 주제로 ‘김득신과 정조임금의 시대’, ‘시대별 풍속화의 변천사’ 등의 강연이 펼쳐지고, ‘리움박물관’을 방문하여 그의 삶과 의미를 더 가까이 조명해 볼 예정이다.

한편, 초등 고학년 대상으로는 ‘여름 독서교실’이 열린다. 8월 7일부터 11일 까지, 글쓰기, 책 읽고 손 편지쓰기, 평창동계올림픽 공익광고만들기, 올림픽 캐릭터 만들기, 북아트 등이 진행되며, 참여 우수학생에게는 안산 시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 수상될 예정이다.

이제 몸과 마음에 시원할 휴식을 선물할 ‘동네 도서관’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프로그램 신청은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인터넷 선착순 접수)에서 할 수 있다.

◇ 문의 : 관산도서관(031-481-2754)



상록구·단원구 도서관

독서교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동물사전'
글쓰기 · 광고제작 · 클레이 · 펄러비즈 '다양한 체험'



상록구는 감골도서관을 중심으로 상록어린이·성포·본오·부곡·일동·수암도서관과 반월·본오1동·본오3동·해양동 작은도서관에서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동물사전’을 주제로 초등대상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동물 상식 독서퀴즈, 동물의 권리에 대한 찬반토론, 모의재판, 북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상식을 키우고, 동물에게 행복을 돌려주며, 이들이 동물답게 살 권리에 대해 깊이 알아본 후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한다.

단원구는 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관산·단원어린이·원고잔·선부·대부도서관과 당곡·와동별빛누리·선녀마을 작은도서관에서 글쓰기, 광고제작, 클레이, 펄러비즈(perler beads, 구슬과 실로 장신구를 만드는 것), 연극놀이, 스피치, 마스코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문의 : <http://lib.iansan.net>
공동취재 김희경 명예기자 · 신선영 명예기자

올림픽수영장, 새 단장 마치고 8월 1일 재개장 국제공인 2급 수영장으로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해져



일일 평균 4천명, 연간 120만 명이 이용하는 올림픽수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한다.

1995년 17,906㎡ 대지면적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306㎡ 규모로 건립돼 올해로 22년이 경과된 올림픽수영장은 특유의 습기로 인한 천정 철골구조물의 부식으로 개·보수 필요성이 요구됐었다.

이번 공사는 국·도비 포함 34억4천만 원이 투입됐다. 이

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천정을 교체하고 남·여 샤워실 확장, 성인, 유아용 풀의 내부 타일과 바닥 데크 교체, 수영장 내부 도색 등 이용 시민의 편리를 위한 새 단장을 마쳤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족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증축했고, 기존 25m 20레인을 50m 10레인으로 바꿔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한 국제공인 2급 수영장 기준에 맞췄다.

올림픽수영장은 안산의 대표수영장으로서 경기용 기구, 장애인 입수보조 기기·리프트, 성인 심폐소생 훈련용 마네킹, 무인게이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으며 남·여용, 장애인용 라커룸, 샤워실, 사우나실과 전망대, 매점, 지도자실, 의무실, 다목적실 등의 부대시설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오전 6시에 시작하는 새벽반, 오전·오후반, 저녁 9시 20분에 끝나는 저녁 수업까지 4개 성인반과 유

아·어린이, 장애인, 연장자를 위한 수영교실 및 수중 운동교실, 주말특별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수영교실이 있다. 수영장 운영은 평일 오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개장한다. 일요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여성만을 위한 전용시간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에서 12까지 별도 운영하고 각 지역을 도는 셔틀버스도 주 중 일일 10회 운행한다.

새 단장을 마친 올림픽수영장은 기존 회원 이외 신규 회원 접수를 7월 26일부터 받는다.

◇문 의 : 올림픽수영장(031-481-4954~5)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도시공사, 초지역 물썰매장 개장 수원, 시흥, 광명 등 인근 도시에서 찾는 명소



안산도시공사는 지하철 4호선 초지역 인근에 위치한 물썰매장을 7월 8일 개장했다.

지난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운영하여 시민에게 큰 호응

을 얻은 안산썰매장이 여름철 물썰매장으로 거듭나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안산물썰매장은 지난해에도 3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수원, 시흥, 광명 등 인근 도시에서 찾는 정도로 안산의 대표 명소가 된 지 오래다.

안산도시공사는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해 안전보험 가입과 안전요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준비도 모두 마친 상태다.

또한 야외수영장 및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추가 운영하여 물썰매 이외에도 다양한 놀이시설을 제공한다.

4호선 초지역과 연계한 입지여건으로 교통편의는 물론 시

내버스 77번 초지역 하차지점으로 이용이 가능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성인 7천 원, 청소년은 5천 원, 어린이는 4천 원이며, 20인 이상 단체는 평일 사전예약, 하루 선착순 500명에 한해 50% 할인해 준다. 운영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휴일 없이 운영한다. 한편 안산도시공사는 호수공원 야외수영장도 8일 함께 개장했다고 밝혔다.

◇문 의 : 안산 물썰매장(031-8085-7444)

안산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개장 58개 프로그램 1,320명 정원… “누구나 즐기며 수영 배워요”



안산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이 1년 6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8월 1일 정식 개장한다. 실내수영장은 국비 28억 원을 포함 7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393㎡ 넓이에 지하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성인 풀(Pool) 25m 6레인과 어린이 풀 15m 2레인을 갖췄다. 남·여 라커룸과 샤워장, 장애인을 위한 라커룸·샤워장·입수 보조시설 등도 함께 마련됐다. 2층에는 전망대와 휴게실, 매점, 지도자실, 의무실 외에 사이클의 속도감과 에어로빅의 경쾌함이 합쳐진 운동인 스피닝 실이 부대시설로 들어섰다. 수영장 옥상에는 관목과 화초류가 조화를 이룬 정원을 조성해 한여름 수영장 건물 외부 온도를 낮추고 주민들에게 멋진 휴게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은 8월 1일 정식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26일까지 선착순 이용 신청을 받는다. 8월 1일부터는 성인, 어린이와 유아,

장애인을 위한 특별반을 개설, 1,320명 정원의 58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용자들을 실어 나를 25인승 셔틀버스 1대도 준비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운영을 맡은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건립은 부족한 수영인프라 확충의 의미가 크다.”며 “날씨와 상관없이 4계절 수영장 이용이 가능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이를 통한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문 의 : 호수공원실내수영장(031-8085-7485~6)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청소년 대상 ‘섬에서 예술에 빠지다!’

경기창작센터는 유·청소년과 성인, 소외된 이웃 등 대상을 세분화 해 쉽고 재미있는 맞춤형·체험형 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예술 분야의 프로 작가들과 교육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된 참신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청소년 대상 ‘창의예술캠프’(18회 1,398명), 성인 대상 창의연수 ‘예술로 Cha, Cha, Cha’(13회, 575명), 소외된 이웃 대상 ‘상상풍당 예술나눔’(76회 1,995명) 등 총 4,282명이 예술체험을 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창작센터에서는 예술이 멀게만 느껴지는 유·청소년들을 위해 ‘진짜’ 예술가들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학교 및 기관 등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예술캠프 ‘섬에서 예술에 빠지다!’는 교과서 밖에서 만나는 체험 위주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반듯한 교과서를 통해 만나는 반 고흐와 모



경기창작센터 창의예술체험 프로그램①

차르트, 도대체 이 어려운 그림과 음악은 왜 배워야 하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알쏭달쏭한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어붙이고 작은 조각을 모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조형물을 완성한다. 유·청소년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며 그 안에서 ‘나의 꿈’을 찾아간다. 예술가들이 사는 섬마을, 대부도 속 선감도로 모여 예술에 빠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안산시 청소년 이용 권장 시설 지정기관인 경기창작센터 ‘창의예술캠프’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으로,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며, 1박2일 이상 프로그램은 대부도 해솔길 아트탐방(해솔길6코스~대부도갯벌)도 이뤄진다.

‘요새를 방어하라’ 프로그램을 체험한 한 중학생은 “페트병과 부표를 사용해 볼링게임을 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요새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분배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친구들과 의논을 해서 튼튼한 요새를 짓는 것이 재밌었다.”고 말했다. 체험 학생들은 대부분 “밖에서 나무나 땅 등을 이용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신선했다. 무엇보다 자연 친화적인 체험을 해서 마음의 더러움이 빠지고 순수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마음이 라는 추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안테나로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내년에 후배들도 꼭 왔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원심력을 직접 만들어 보며 배울 수 있어서 더 이해가 잘 되었다.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 등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의 : 경기창작센터(032-890-4821)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안산성호중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



안산성호중학교(교장 김양희)가 안산상록경찰서, 일동파출소, 안산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부모회에서는 ‘사랑은 과유불급’, ‘이따가 연락하마’, ‘너에게

사랑을 들이부엉’, ‘네가 최고래’ 등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애교 섞인 사랑의 메시지를 사탕봉투에 담아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선물했으며, 안산상록경찰서에서는 ‘365일 행복한 학교~ 36.5℃ 따뜻한 학교’라는 메시지가 담긴 부채를 선물했다.

성호중학교는 매일 학부모 폴리스 활동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안산성호중학교 학부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학부모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지도를 할 수 있어 매우 좋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의미 있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순실 성호중 인권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인근 파출소 등에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에 신경을 써달라며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성호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부모 참여 사업에 선정되어 ‘일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대상 사랑의 반찬기부’, ‘안아줘(아프리카에 사랑의 안경 나누기)’, ‘내 자녀 진로코칭 전략 연수’ 등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문 의 : 안산성호중학교(031-408-2896)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안산시 스카우트, 체험학습

블루베리 농장에서 즐거운 ‘한 때’



“여러분이 오늘 따실 블루베리는 ‘블루 제이’라는 품종이에요. 맛이 달고 향이 깊은, 어떤 블루베리보다 탁월한 맛을 가진 품종입니다. 가장 맛있는 시기에 잘 맞춰 오셨어요. 한꺼번에 여러 개 보다는 제일 크고 잘 익은 것으로 하나씩 따

서 모양도 관찰하고 맛도 보세요.”

선부동 안산 블루베리 농장 안정현 대표는 농장체험 활동에 나선 안산시 초등학교 걸·컵 스카우트 단원들에게 블루베리의 효능부터 재배, 수확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했다.

스카우트 단원들은 상품으로 구입해 먹던 블루베리를 나무에서 직접 따서 먹어보고, 잼을 만드는 신나는 활동시간을 보냈다.

전소는 어린이(삼일초 6학년, 걸 스카우트)는 “블루베리 나무를 처음 봤는데 키 작은 나무에 맛있고 몸에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신기하고, 잼 만드는 활동도 무척 재미있어요.”라며 체험 소감을 말했다

배운주 안산시 걸 스카우트 연합회장은 “집 가까운 곳에 시설 좋은 블루베리 농장이 있어서 단원들이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었다.”며 “안산에는 박물관, 갯벌, 도시 숲 등 체험할 곳이 무척 많은데 초등생들은 내 고장 알기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세계로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 블루베리 농장에서는 직접 수확하는 재미와 함께 잼·와인·비누 만들기와 묘목심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가능하다. 방학을 맞는 아이들과 농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 문 의: 안산 블루베리 농장(010-8693-6700)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중앙도서관 11주년 기념공연 ‘조윤범의 콰르텟X – 음악사의 하이라이트’



한여름 밤의 열기를 잠재운, 청바지 입은 클래식

‘청바지를 입은 클래식’ 등 유쾌한 음악해설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그가 이끄는 현악사중주단 ‘콰르텟 X(엑스)’가 7월 21일 중앙도서관을 찾았다.

제1·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이루어진 ‘콰르텟 엑스’는 강의와 음악콘서트가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정통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현악사중주의 개념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

개관 1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음악사의 하이라이트’ 공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단위 관객이 주를 이뤘다. 이른 저녁을 먹고 산책 겸 나들이로 도서관을 찾은 이들은 공연을 즐기며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날려버렸다.

편곡, 칼럼, 강좌뿐 아니라 저자로도 잘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은 무대 앞에 웅기

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을 시작했다. 바로크 음악부터 낭만주의 음악까지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작곡가들의 음악을 듣는 내내 아이들을 비롯한 관객 모두는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콰르텟 엑스는 기악 양식이 가장 많이 발달한 바로크 음악의 대표작품이자 대중들에게 친숙한 비발디의 ‘사계’로 공연의 문을 열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계는 봄·여름만 연주해도 40분이 걸려요. 여러분이 지루할 테니 4분으로 편곡해 들려줄게요.”라는 조윤범의 멘트에 “늦게 가도 괜찮아요.”라는 아이의 대답이 들려온다. 관객 모두는 함박웃음을 웃었다.

이어 고전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제38번 농담 4악장’,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 제21번 2악장’, 낭만주의 음악의 길을 연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제1번 4악장’이 차례로 연주됐다.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연주여행을 다니던 여섯 살 때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청혼한 이야기나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만남, 베토벤의 제자 체르니 등등 조윤범이 들려주는 음악에 얹힌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사(野史)를 듣는 것만큼이나 흥미로웠다.

현을 손가락으로 통겨 연주하는 피치카토 주법으로 차이콥스키의 발레곡을 연주할 때, 공중으로 선 네 개의 활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한 발레리나와 같았다.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를 찾은 김민구 씨(57세, 초지동)는 “폭염에 지쳐있는 여름에 도서관에서 이런 훌륭한 음악회를 마련해주어 좋은 경험을 했다. 음악의 맛을 알게 해 준 공연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생각이 진작 달라졌을 것”이라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하만석 씨(35세, 고잔동)는 “이렇게 질 좋은 공연을 가까운 곳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흐뭇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문 의 : 중앙도서관(031-481-270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공동체 목공방 ‘마을숲 통나무공방’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나만의 목공품을 만들다



목공방은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는 새로운 놀이터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사포질을 하며, 어른들의 시간은 어느덧 온종일 쓸데없는 물건들을 만들어 내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가구점에 들러 몇 분이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구를 몇 달 동안 공들여 내 손으로 완성한다. 조금 거칠고 뽀빠어도 내가 만든 물건이다. 윤기하나 없이 나뭇결을 그대로 간직한 책상과 서랍장은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다. 그 안에 꼭 나의 일부분이 들어 있는 것만 같다.

‘마을숲 통나무공방’은 2015년 가을에 주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만든 마을공동체 목공방이다. 평소 목공에 관심이 있던 주민들이 넓은 지하 공간을 직접 임대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장비도 조금씩 사 모았다. 수업에 사용할 커다란 원목도 직접 나르고, 내부 공간도 함께 꾸렸다. 안산에 목공방이 흔치 않기 때문에 목공에 관심이 있었지만 선뜻 배워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알음알음 모이기 시작했다.

주부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목공수업은 계속 확대돼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수강생들이 마을교사가 돼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목공체험 수업도 진행하고, 마을 축제 때마다 새로운 체험 부스를 마련해 주민들을 만났다. 올해는 공방이 경기도 꿈의 학교로 선정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의 수업이 있는 목요일 저녁 목공방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일곱 명의 청년들이 한창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연습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위험한 장비들이 많은 곳이니 공구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 수강생들은 집중해서 공구를 다루면서도 자유롭게 편안해 보였다. 이어 타카(tacker, 못총)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다음에 만들 나무상자를 종이에 디자인하는 수업이 진행됐다.

목공수업 보조강사로도 봉사하는 조충희 씨는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목공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곳을 찾아왔다. 목공방 내부가 이렇게 넓은 곳은 안산에서 여기밖에 없다. 이곳에서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평소 접할 수 없는 기계들도 만지니 재밌다. 가구를 만들어가는 보람도 있고, 흥미롭다.”

수강생들이 만든 첫가락이 줄지어 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나무 종류에 따라,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수만 가지 색깔과 굵기의 첫가락이 만들어질 터였다. 똑같지 않은 것들이, 달라서 좋은 것들이 마을숲 통나무공방에서 고요하게 빛난다.

◇문 의 : 마을숲 통나무공방(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12 지하1층 / 031-408-7601)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동네책방 '토닥토닥 괜찮아'

책과 차,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책의 수명을 염려하는 시대라지만, 다시 동네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는 소규모 책방들이 부활하고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왔을 작은 책방, 그 로망을 현실로 만든 커뮤니티 동네책방 '토닥토닥 괜찮아(이하 토닥토닥)'를 찾았다. 단원구 초지동 상가 건물 2층, '차와 책, 비어(beer, 맥주)가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란 작은 간판이 말해주듯 '토닥토닥'은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오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이다. 넓은 카페 공간에 세미나 실도 따로 마련돼 있어, 대규모 강연부터 소규모 동아리 모임까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

'토닥토닥'은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 회원들이 힘을 합쳐 만든 공간이다. 초지동에서 마을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과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활동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동네책방을 시작하게 됐다. 작년 말부터 장소선정, 인테리어, 운영원칙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충분한 회의와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십시일반 재정을 부담해 공간을 마련하고 출자자와 후원자를 모집해 내부를 꾸며나갔다. 책방 운영도 아직은 인건비를 따로 마련하기 어려워 회원들이 직접 메뉴를 배운 후 돌아가며 봉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매니저로 책방을 돌보는 김미영 씨는 "이름을 서점이지 아닌 동네책방이라고 했던 이유가 정서적인 것들을 포함시키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웃과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우리 책방의 특화된 분야가 '마을'과 '세월'이다. '마을과 관련된 자료는 여기 오면 다 있다더라' 그렇게 알려졌으

면 좋겠고, 안산시민으로서 세월호 관련 서적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구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많은 권수는 아니지만 '토닥토닥'의 책들은 사람의 온기를 품고 있다. 포스트잇에 손글씨를 써 꼬리표를 달아놓은 책들, 기증한 이웃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붙여진 '우리동네 공유서가' 등, 책에 담긴 소소한 이야기들이 주민들을 반긴다. 창가 쪽 바 테이블에 앉아 시간가는 줄 모르게 책을 읽기도 좋고,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기에도 아늑한 공간이다.

주말 오후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봉사를 하던 최운경 씨는 "이제 막 문을 연거라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도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동아리들도 유치할 계획이다. 일부러 공간 한쪽 벽면을 비워줬는데,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이 공간을 이용하셔도 좋다. 책읽기모임이나 악기수업 등 개설을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과제빵 강사로도 활동했던 김미영 씨는 새로운 메뉴개발도 고민하고 있었다. "지금 최소한으로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메뉴만 준비했지만, 가을부터 메뉴도 하나씩 늘리고, 브런치 류도 런칭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 갈 계획이다. 아직은 돈 모으면 책 사기 바쁜 상황이지만 더 많은 분들이 후원자와 출자자로 참여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다."

동네책방 '토닥토닥'을 이용하면 소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책 구매할 때 판매가의 3%가 적립되고, 책 두 권을 구입하면 아메리카노가 무료다. 책방에 없는 책을 주문할 때는 5%가 적립되고, 책을 구매하고 다시 책방에 재반입하면 판매가의 30%를 적립해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정성과 애정이 스며들어 서걱서걱 책장 넘기는 소리조차 정겨운 곳, 동네책방 '토닥토닥 괜찮아'에서 삶이 주는 위로를 음미해 보는 건 어떨까.

◇문의 : 토닥토닥 괜찮아(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18 대일타운 204호 / 031-411-3035)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2017 단원미술제 시각예술 전 부문, 안산선정작가 공모전 열려

안산시와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단원 김홍도가 이룩한 화가로서의 업적을 기리며 안산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적 창작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지원하고자 2017 단원미술제 시각예술 전 부문(평면, 입체, 영상, 복합매체) 안산선정작가 공모전을 연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

경쟁률은, 작가의 길을 열망하는 우리 젊은 작가들의 신념과 열정이 얼마나 큰 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에 거주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열리는 안산선정작가 공모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 동안 접수를 받는다. 시상식은 10월 13일 예정이며, 시상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선정작가전이 열린다. 해외 전시도 개최할 예정이다.



△ 작품접수

1차 접수 : 08.01(화) ~ 08.11(금) 포트폴리오 접수
2차 접수 : 08.27(일) ~ 08.28(월) 1차에서 선정된 실제 작품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모전은 특정 작품에 대한 단편적인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작가적 역량을 갖춘 유망한 작가를 발굴·육성한다는 운영방침을 반영했다.

지난해는 전국에서 400여 명의 우수한 작가들이 2천여 점의 작품을 응모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 관계자는 "유망작가 발굴이라는 공모전의 목적을 감안할 때 '20대 1'의 높은



안산문화재단, '2017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호기심으로 무대를'... 해외 아동·청소년 공연 선배



안산문화재단이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인 '2017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in 안산'을 연다.

아시테지(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는 전 세계 83개 회원국의 3천여 명이 넘는 아동·청소년 공연 예술인들이 공연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서로 교류하고 활동하는 비정부 국제기구로, 한국에도 본부를 두고 있다.

아시테지 한국본부가 주최하는 국제여름축제는 매년

여름 서울 대학로 전역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로, 올해는 멕시코,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11개국 14편의 우수작품이 선정됐다. 안산에서는 '호기심으로 무대를!'이란 주제로 멕시코와 스코틀랜드의 작품을 선정,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이야기한다.

개막작, 멕시코 <마야 전설의 새>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멕시코 극단 '아킬라레'의 <마야 전설의 새>가 축제의 막을 열었다. 멕시코 특유의 리듬과 창의적인 오브제가 결합한 마야 문명 속 용감한 조상의 이야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빵바구니, 나무순가락과 라탄 바구니 등의 전통 요리도구들을 주인공으로 변신시키고 극중 라이브 음악연주까지 더해져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29~30일, 스코틀랜드 <조세핀을 찾아라> 공연

스코틀랜드 극단 '쇼나레페'의 <조세핀을 찾아라>는 미스터리한 단서를 따라 의문의 존재를 쫓는 상상 추리극이다. 베이커 박사와 함께 스크랩북의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객들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닌,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미스터리한 단서를 쫓으며 추리력과 사고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된다. 관객들의 기발한 탐구심과 관찰력을 이끌어내며 몰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 일 시 : 7월 29일(토) 11AM, 2PM, 7월 30일(일) 11AM(공연시간 50분)
-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관 랑 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 공연언어 : 영어(배우 통역 진행)

◇ 문의 :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031-481-4023)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여름기획전

크로싱 5060展... "안산미술, 문화의 지평을 열다"

무더위에 지친 여름, 시원한 전시관에서 안산의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중견작가들과 만나보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에서는 2017년 봄 기획전 '크로싱3040전'에 이어 여름기획전 '크로싱5060전'이 열리고 있다. 지난 17일(월)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1990년대 초 안산미술의 태동기였던 단원작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전시는 9월 4일(월)까지 50일간 진행된다. 참여작가는 강선홍, 김영구, 박문수, 안예환, 이규승, 하진용 등으로 평면조각, 동양화, 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중견작가들이다.

전시기간동안 작가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연과 아티스트 토크도 이어진다. 8월 19일(토) 오후 2시 화랑전시관 2관에서는 김미란 작가가 '꿈으로 꿈을 꾸다'라는 주제로, 26일(토) 오후 2시에는 김폴임 작가가 '행위예술의 정체성과 변천과정'에 대해 참가자들과 함께한다. 안산문화재단은 50~60대 원숙한 중견작가들과 시민이 작품세계를 함께 공감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젊은 작가들에게도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 신예 작가를 끊임없이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안산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시명: 크로싱(Crossing)5060展
- 전시기간: 2017. 7. 17.(월) ~ 9. 4.(월)
※ 휴관일 없음
- 전시장소: 화랑전시관 1, 2관
- 참여작가: 강선홍, 김미란, 김영구, 박국현, 박문수, 박신혜, 백승돈, 성하영, 안예환, 이규승, 장경영, 정운기, 이승, 황기선, 하진용, (이상, 15명)

◇문 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031)481-0507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안산소방서

개인택시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개인택시를 활용한 소방홍보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계획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활용한 소방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이미지 삽입 차

량용 깃발(가로 30cm x 세로 20cm x 높이 40cm) 100개를 제작한 후 안산시 개인택시 사업조합을 방문하여 배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국빈 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수"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산도시공사 & 산림조합중앙회 업무협약 토목건설 현장 임목폐기물, 원목 자원으로 재활용



이번 협약으로 산림조합은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토목공사의 벌목을 시행하여 원목자재를 제공받고, 공사는 벌목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사로부터 제공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하 도시공사)는 7월 13일 공사 상황실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성미)와 임목의 원목자원화 및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받은 원목은 산림조합에서 가구 등을 만드는 원목자재로 사용하며, 뿌리 또는 가지 부분은 연료목으로 사용하게 된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임목을 자원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은 ▲임목활용 처리절차 ▲벌목절차 및 원목의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진택 사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임목 폐기물을 산림조합에 제공해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례가 자원 재활용에 따른 환경보존 효과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3.0 기관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도시공사(031-481-4917)



안산환경재단, 가정의 에너지 절약 이끈다 가정 에너지진단사, 시민에너지 강사 ‘양성’



YMCA 회의실에서 관련 수료식을 갖고 시민에너지 강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종옥 안산환경재단 본부장은 “안산시 시민 에너지전문가로 앞으로의 활동을

안산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사무국 안산환경재단, 이하 협의회)는 가정 에너지진단사 19명과 시민에너지강사 9명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7월 14일 안산

기대해도 좋을 실력을 갖추었다.”고 덕담을 전하며 축하했다. 이번에 양성된 에너지진단사는 집의 평형과 대비해 20%이상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800가구를 방문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500명과 시민 1,000명에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운동도 전개한다. 안산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운동은 사무국인 안산환경재단을 비롯해 지역 내 21개 단체와 35개 아파트가 참여하는 지자체 단위 최대의 시민에너지 운동이다.

◇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10)

안산상록경찰서, 도로의 무법자 ‘견인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총 23건 단속… 시민 불편 ‘해소’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이석권)는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으로 달리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견인차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평소 견인차들이 사고출동을 빙자하여 난폭운전을 일삼고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총 23건을 단속했다. 이는 상록구에서 운행 중인 견인차의 약 50% 가량을 차지한다. 더불어 견인차 업체를 상대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경고 및 준법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들은 경찰의 이번 단속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상록구 주민 A씨는 “얼마 전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굉음을 내고 신호위반까지 한 견인차를 경찰이 단속하는 것을 보고 아주 속이 다 후련했다.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반가워했다.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견인차의 범법행위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용해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권 서장은 “이번 집중 단속 후 상록구 지역에서 견인차들의 위반행위가 많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인근 단원경찰서와 공조, 안산지역에서 견인차 난폭행위를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 상록경찰서 교통안전계(031-8040-2417)

안산시의회, 통합 예비군훈련장 반대 결의안 채택 대표발의 정승현 부의장 “일방 추진 계획 철회하라”

제23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만장일치 가결

안산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제2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승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통합 예비군 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정 부의장은 “안산시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의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 계획은 안양·의왕 지역 주민의 훈련장 이전 민원을 수용하기 위한 간사한 계책으로, 안산시를 무시한 행위이자 극명한 지역 차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안산시

의 선부동 및 양상동 훈련장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안산·시흥·안양·의왕·과천·광명·군포·영흥면 등 7개시 1개 면의 예비군들이 훈련할 경우 그 인원이 현 7만 9천여 명에서 13만 8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양상동 훈련장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곳으로 안산C와 인접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매우 심하며, 대중교통도 불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행 안전 위협, 훈련장 주변 개발제한 등의 문제도 예상되고 있다.

정승현 부의장은 “수년 동안 예비군 운영에 따른 피해보상은 커녕 안양·의왕시 등 타 지역의 민원을 안산시로 전가시키려는 국방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시의회가 6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승현 부의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의회의 의지를 분명하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안산시의회

7월 월례조회 ‘이심전심(以心傳心)’ 개최



7월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 ‘이심전심’의 한 장면.

안산시의회가 7월 월례조회 ‘이심전심’을 개최,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의회는 지난 7월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민근 의장과 여환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조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매달 추진하고 있는 ‘현장의 날’ 방문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고 의회 공익광고 제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부에는 대한적십자사 안전문화연구소 이귀복 강사로부터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관련 소양 교육을 실시,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민근 의장은 “6월 한 달 동안 정례회 운영과 지원으로 수고가 많았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7월에도 민의를 대변하는 안산시의회 일원으로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다.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제3차 본회의서 안건 35건 의결… 24일 대장정 마무리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안산시의회가 6월 30일 열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심의해온 안건들을 의결

하며 24일 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5건, 기획행정위원회 107건, 문화복지위원회 113건, 도시환경위원회 94건 등 총 319건의 사무에 대해 지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6월 7일 구성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특위를 열어 2016 회계연도 결산과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 개최 직전에 진행된 소통콘서트에서는 사3동 통장협의회 연극동아리가 ‘우리들의 애환’이라는 연극을 선보였으며, 본회의 의결에 앞서서는 윤태천 의원이 농촌 지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민근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정례회는 의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준 덕분에 행정사무감사 등이 알차게 진행됐다.”면서 “이번 회기가 안산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이민근 · 정승현 · 홍순목 · 이상숙 의원 수암 꿈나무체육공원 조성 기여, 감사패 · 공로패 수상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과 정승현 부의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 이상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가 7월 16일 상록구 장상동 수암 꿈나무체육공원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 축구 동호인들로부터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안산동(장상동) 수암 꿈나무체육공원 내 동막골 분운동장에서 열린 완공 기념식에서 본안산FC 및 수암FC 회원들로부터 이민근 · 정승현 · 홍순목 의원은 감사패를, 이상숙 의원은 공로패를 각각 받았다.

동호인들은 이들 의원들이 “평소 소외지역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암 꿈나무체육공원 조성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주민들의 감사한 뜻을 모아 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의원들은 이 사업의 예산 수립 단계부터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전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은 물론 행정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상숙 의

원은 앞서 수차례의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며 이 시설이 사용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앞장서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장상동 일대에 수암 꿈나무체육공원이 들어섬으로써 그 동안 문화체육 활동에



서 소외됐던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암 꿈나무체육공원은 면적 1만 4천528㎡에,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테니스장 3면 등의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로,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 속에 지난 6월 말 공사를 마쳤다.

성포동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 만든다 지역 상권 보호 위해 대형유통업 진입 제한



이민근 의장 “중재자 역할 충실히 하겠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록구 성포동 스타프라자 상가 일대가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산시의회와 시 지역경제과 등에 따르면 이민근 의장은 지난 6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성포동 스타프라자 상인들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민원을 접수받고 해당 사항을 상세히 파악,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했으며,

최근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을 회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스타프라자 상인들은 “어려운 영업 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전통시장 등록을 마쳤으나 이 일대에 대형유통업체가 추가로 입점할 수 있어 불안한 상황”이라며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시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항에 따라 스타프라자 등 4개 전통시장에 대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의회에 화신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안산시에 등록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는 앞서 지난 5월 전통시장 등록을 스타프라자를 포함한 5개소로 확대한 바 있다.

이민근 의장은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며 시 집행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좋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안산희망마라톤대회, 오는 9월 24일 개최 “업무에 지쳐있는 몸과 맘, 달리며 풀어보자!”



올 가을에도 역시 ‘안산희망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오는 9월 24일(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이번 마라톤 대회는 단원구 와~스타디움에서 시작해 하프, 10Km, 5Km 등 총 3가지 노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하프 코스는 와~스타디움에서 출발해 시화로를 지나 시화MTV 단지 내 반달섬을 돌아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21Km정도다. 10Km 코스는 출발 후 신안산대학교를 지나 원포공원 앞길을 돌아 다시 들어오는 구간이며, 5Km는 가장 짧은 코스로 와~스타디움에서 초지역을 지나 시청을 경유해 도착하는 코스다.

이번 희망마라톤대회는 약 6,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영예의 마라톤 1위 우승자에게는 상품으로 3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이 주어지며, 2~5위까지도 버금가는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안산희망마라톤대회는 마라톤 외에도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많이 준비돼 있다. 주 행사장인 와~스타디움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 시켜 줄 여러 유명 초대가수들을 초청해놓은 상태이며, 어린이놀이터와 갖가지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안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 등이 참여하는 ‘2017안산희망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며 “시민 건강증진 및 지역축제의 장 이자 명품대회로 승화시켜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재촉할 즈음,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달리며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추슬러보자.

◇문의 : 안산시체육회(031-481-3540)
유가희 명예기자 _ 425170@naver.com



술이란 중풍이란?



중풍이란 뇌졸중을 흔히 일컫는 말이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예컨대, 팔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은 같을지라도 그 원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술은 혈압을 높인다. 그래서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과도한 음주는 음주량과 비례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술이지만, 뇌출혈의 경우에는 지혈을 방해해 오히려 더 큰 출혈을 조장할 수 있는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루에 2도 소주 2병 이상을 폭음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런 혈압 상승에 의해 뇌출혈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경색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방 세동'(심방이 무질서하게 매우 빠르고 미세하게 또는 그보다는 덜 빠르면서 규칙성이 있게 떨리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과 같은 병적 부정맥, 경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알코올과의 관계는 보다 복잡하다.

술은 혈전 형성을 막는 효과와 함께 동맥경화증 발생을 억제하는 고밀도지질단백의 혈중 농도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혈압을 올리고 심방 세동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알코올 섭취는 뇌졸중 위험을 그리 높이지 않으나 과음이나 폭음은 어떤 형태로든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과음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기는 사람은 감마지티피(γ -GTP)라는 검사 수치가 상승한다. 이 감마지티피가 증가할수록 뇌졸중 위험률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과음이 간 손상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뇌졸중도 일으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음주는 뇌경색, 뇌출혈을 모두 일으킬 수 있으나, 많은 양의 술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이 뇌출혈을 더 잘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또, 흡연과 함께 하는 지나친 음주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에서 뇌졸중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보다 더 젊은 나이에 뇌졸중에 걸리는 이유이다.

적당히 마시는 술, 즉 매일 1~2잔의 소주나 맥주 2컵 정도를 즐기는 것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심지어 다른 이유로 뇌졸중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라면 뇌졸중 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한다. 많이 마시던 사람이 소량으로 자제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한동안 소량으로 줄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주량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이므로, 음주 자체를 아예 중단해야 한다.

• 심장내과전문의 이호준

단원보건소

양치시설 학교 칫솔질 실천 우수학생 왕중왕 개최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추천으로 총 265명 선발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2017년 제72회 구강보건의 날 일환으로 관내 양치시설 설치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칫솔질 실천 우수학생 왕중왕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왕중왕전은 양치시설 운영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각 반에 비치된 일일 칫솔질 관찰판에 점심 식사 후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칫솔질 실천 학생중에서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추천으로 총 265명이 선발됐다. 학생에게는 격려품으로 구강건강 관리셋트(칫솔,치약,허크리너,치실)를 지원했다

칫솔질 실천 우수학생 왕중왕전은 2012년부터 단원구 초등학교 6개교(관산초,원일초,원곡초,덕인초,안산서초,안산석수초)에 복도 공간을 이용해 양치시설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양치습관 형성을 유도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학령기 아동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집에서는 물론 학교 급식 후에도 칫솔질을 꼭 실천하는 습관이 정착되길 바라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 단원보건소(031-481-3490)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8월

민어

민어의 효능

- 다이어트 효과 : 열량이 낮은 흰살 생선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피부에 탄력을 준다.
- 어린이 성장발육 촉진 : 소화 흡수가 빨라 어린이들의 발육을 촉진하고 노인 및 환자의 건강 회복에 좋습니다.

맛있는 민어 고르는 방법

- 몸통을 눌러보아서 단단한 것이 신선한 것이며, 눈동자가 선명한 것이 좋다.
- 크기가 클수록 알이 짙어 있으며 단맛이 높습니다.
- 또한, 수입산과 같이 유통되고 있는데 국내산은 몸의 폭이 낮고 등의 색이 진한 반면 수입산은 몸의 폭이 높고 등이 연한색을 띠다. 그리고 국내산은 배가 연한 회색이지만 수입산은 흰색을 띠고 있어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도매시장의 민어 거래가격(2017.7.19(수) 기준) : kg당 수입산(4만원), 국내산(7만원)(매일 거래가격 변동됨)

민어 요리 종류

- 민어찜, 민어전, 민어구이, 민어무조림, 민어지리탕 등.



여름철 일품 보양식 민어!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인공지능 시대,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오늘날 주창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요소도 바로 이 기술이다. 인간은 인공지능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여 왔다.

말레이시아 항공사 에어아시아는 인공지능을 도입해 연간 100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다. 항공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항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항공효율성 서비스(FES)' 관련 AI를 도입함으로써 얻은 효과이다.

일본의 보험회사 후코쿠는 인공지능 왓슨(AI Watson)을 도입하여 인력 34명을 대체했다. 왓슨은 병력, 입원기간, 수술명 등을 해독한다. 왓슨은 2011년 퀴즈쇼 제퍼디에 참가하여 인간과 첫 대결을 벌이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이래, 주로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로봇직원으로 운영되는 호텔을 개장하여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 호텔에서는 안내, 체크인 등의 업무 가운데 70%를 시로봇이 담당한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도 인공지능이 핵심기술이다.

의료와 교통, 건설이나 환경 등의 사회 인프라와 스포츠를 비롯하여 교육, 법률, 행정, 정치 등 생활 곳곳에서도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 가지 분야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넘어 다방면에 걸쳐 실력을 보이는 일반 인공지능(AGI)의 시대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우리는 컴퓨터 등에 의해 혼란이 야기되거나, 인류가 지배당하거나 멸망당한다는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소설 등을 많이 접하면서도 그것은 상상이나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 왔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흥미의 소재가 아니라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 다음호에 이어짐.

• 김재덕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정책연구팀장(경영학박사)



사회공동체 활성화로 고독사 예방해야



고독사란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하고 일정 시간동안 방치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런 고독사의 원인으로는 우리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균형의 심화, 국가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빈곤, 가족기능의 붕괴로 인한 핵가족화, 이기주의적 가치관의 팽배로

인한 노인 존중의식 약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대 간의 의식격차 등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741건이었던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수가 불과 2년 후인 2014년에는 1,008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 방영된 KBS 고독사 관련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고독사로 추정되는 수까지 합할 경우 11,0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즉 하루 평균 4.7명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독거노인 및 1인 가구를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스웨덴이나 일본, 프랑스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는 기초연금, 긴급호출 버튼 설치, 노인클럽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미사업이나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유케어(U-care)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독거노인이나 1인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 주거제나 친구 만들어 주기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복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이다. 특히 고독사의 문제가 심각한 1인 가정, 고시텔, 고시원, 농어촌 지역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사회공동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고독사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겠다.

• 전영태 경위(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내가 개구쟁이들에게 행복한 이유



열심히 모으고 절약한 덕분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그런데, 그토록 갈망하던 내 아파트에서 하루하루 행복해하고 있을 무렵, 바로 위층의 공포스러운 소음이 시작됐다.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러면서 나도 사람인지라 '정말이지 언제 만나기만 해봐라...'라며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찬스. 엘리베이터에 올라 7층 버튼을 누르려는데 한 엄마와 두 아이가 함께 타더니 8층을 누르는 게 아닌가. 순간 '오호 그래. 이제 정말 딱 걸렸어' 쾌재를 부르며 말을 걸려 하는데~ "어머 아래층에 사시나 봐요. 우리 애들이 좀 뭐죠? 남자아이들이라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직 철들이 없어서요. 호호호"

어라~~ 제때에 선수를 치는 아이 엄마. 엄마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듯 킥킥 웃기만 하는 녀석들. 호시탐탐 '걸리기만 해봐라'라며 버르던 나는 소심하게도 그저 조용히, 그리고 조신하게 "네에~" 하며 꼬랑지를 내렸다. 그날 나의 '처절한 복수극'은

초롱초롱하게 뜨고 바라보던 개구쟁이 녀석들의 눈빛에 완전 행복하야만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위층의 그 주부가 케이크를 하나 사 들고 우리집에 내려온 게 아닌가. "또 뵙네요. 호호호. 언젠가 아저씨(우리집 남편)가 초코 케이크 사 들고 내리시는 거 봤어요. 가족 중에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라며 찾아온 이 주부. 진정 센스도 작렬이다. 이거 참. 먼저 선수를 친 후 케이크까지 사 온 마음 씩씩하며, 이웃 간에 얼굴 붉히지 말고 웃고 지내자는 화해의 손짓. 그동안 '만나기만 해봐라'라며 버르고 있던 내가 어찌나 부끄럽고 민망하던지...

"시끄럽긴요 뭐... 다음엔 제가 위층으로 놀러 갈게요"라며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마주앉아 한 시간 넘게 인사를 트고 수다를 떨었다. 8층과의 만남은 이렇게 나의 '기분 좋은 KO패'로 끝났다. 그리고 위층의 개구쟁이 녀석들은, 지금도 계속 뛰고 있다. 신나게... 그런데 이게 웬걸? 아이들 쿵쿵거리는 소리가 이젠 멜로디로 들린다. '애들이 그렇죠 뭐. 크느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 집 주부를 만나면 내가 건네는 인사다. 그런 게 우린 안산의 이웃들인가 보다.

• 김경자(안산시 단원구 당곡2로)



『안산고용복지+센터』개소

일자리와 함께 안산시 복지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 ◇ **참여기관 및 주요 서비스**

참여기관	주요 서비스
안산고용센터	취업지원,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기업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
안산일자리센터	일자리상담, 일자리박람회,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일드림, 특성화고 취업지원 등
안산시복지지원팀	복지종합상담, 저소득층 자활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경기도 특화사업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 취업 및 교육 지원, 채용행사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구직자 취업상담 등(매주 화요일 10~17시 운영)

◇ **문의** : 031-412-6690~6691(초기상담 창구)

한양대학교 ERICA사회교육원 2017년 가을학기 교육과정안내

	골프과정	역량과정
강의기간	〈 2학기 〉 8.28.~12.24.(16주) 〈가을학기〉 9.18.~12.24.(13주)	9.4.~12.24.(12주)
강의내용	골프, 자격증과정(GTQi,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전문가과정(사진, 댄스스포츠 등), 교양과정(생활법률, 글쓰기 등), 외국어과정(원어민 수업 포함)	
상담문의	상담전화 : 031) 400-5843~46,5850사회교육원 행정팀 카카오톡상담 : ID(한양대학교ERICA사회교육원)추가 후 상담 상담가능시간 : 평일 10:00~20: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2017 안산 희망마라톤대회

- ◇ **대회일시** : 2017. 9.24.(일) 8:30(9시출발)
- ◇ **장 소** : 안산와스타디움
- ◇ **접수기간** : ~ 8.24.(8천명 선착순 마감)
- ◇ **종 목** : 하프, 10km, 5km
- ◇ **접수방법** : 인터넷(www.ansanrun.com) 및 전화(031-481-3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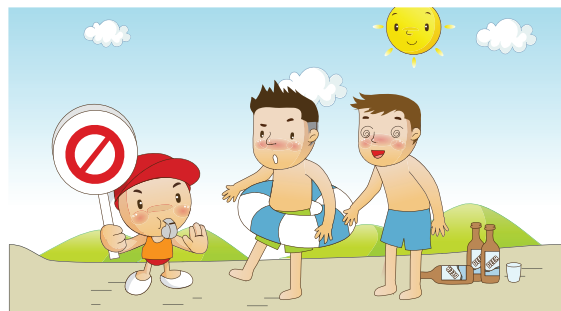
2017 안산·시흥 『청년층/특성화고 대규모 채용박람회』

- ◇ **일 시** : 2017. 8. 30.(수) 14:00 ~ 17:00
 - ◇ **장 소** : 안산올림픽기념관체육관
 - ◇ **주최/주관** : 경기도,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시흥시, 안산고용복지+센터, 시흥고용센터
 - ◇ **대 상** : 청년층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행사내용** : 구인·구직 현장 면접,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용 사진 무료촬영, 직업심리검사, 직업타로 검사 등
 - ◇ **문 의** : 031) 481-2919 / 2277
- ※ 8월 19일 안산919취업광장은 8월 30일 행사로 대체됩니다.

여름철 폭염주의 조심 조심~!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넥타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을 써서 햇볕 가려서
생명을 지키는 폭염에
'Cooooooooo'하게 대처하세요!

08 폭염 예방 캠페인



여름철 안전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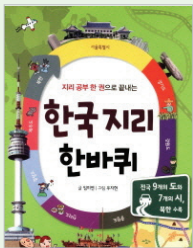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여름 휴가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운영

- ◇ **집중신고기간** : ~ 8.31.
 -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 ◇ **신고대상** : ①물놀이장, 유원지, 야영·캠핑장 등 피서지 위험요소 ②풍수해 피해 우려 지역, 교통 위험요소 등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소 모두
 - ◇ **문 의** : 044-205-4225(안전개선과)
- ※ 집중신고기간 중 우수신고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홈페이지 참조)

안산시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이 조례개정을 통해 월 2회에서 1회 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책 읽는 안산 / 8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여행을 떠나요』



한국지리 한바퀴

저자 임미연 / 출판사 계림북스

『한국 지리 한바퀴』는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와 북한을 포함한 17개의 지역을 담고, 각 지역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역사, 지리와 자연환경, 자원과 산업, 교통, 문화유산, 축제, 이렇게 7개의 영역별로 나누어 내용을 구성하였다. 초등 사회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자세한 지도와 재미있는 그림, 생생한 사진들로 구성된 지리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지리 공부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아이들은 길에서 배운다

저자 류한경 / 출판사 조선Books

『아이들은 길에서 배운다』는 좋은 성적보다는 좋은 습관, 좋은 추억, 좋은 관계를 교육 이정표 삼아,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소신맘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소박하고 따뜻한 유럽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여행을 통해 자라고 세상을 배우고 자연을 만나고 더 단단해 지는 것이다.



인류학자처럼 여행하기

저자 로버트 고든 / 출판사 펜타그램

당신의 여행을 완전히 바꿔 놓을 책
『인류학자처럼 여행하기』는 인류학자가 쓴 독특한 여행 안내서이다. 인류학은 사회과학 중 가장 성찰적인 학문이며,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한다는 학문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류학자는 여행 전문가 집단이 되었다. 이 책은 이처럼 최고의 여행 전문가인 인류학자가 인류학의 학문적 개념들과 그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여행 기술을 활용해 실용적인 여행법을 제공한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